

# 박찬호 복귀 효과도 없다...KIA, LG에 완패

1차전 이어 2차전도 1-5로 저수비 실책 이우성 삼진만 3개 올러, 잠실 첫 승 다음 기회로



KIA 타이거즈가 LG 트윈스의 첫 맞대결에서 완패를 당했다.

KIA가 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시즌 2차전에서 1-5패를 기록했다. 비로

하루를 쉬었던 KIA는 박찬호의 부상 복귀에도 분위기 반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다시 또 패배를 기록했다.

KIA는 지난 4일 LG와의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1회 2점을 뽑아냈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2-8 역전패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2회부터 실책을 기록하는 등 3실점을 한 뒤 일방적인 패배를 당했다.

주중 삼성을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한 KIA는 첫 잠실 원정에서 졸전을 이어가면서 2패만 추가했다. 이범호 감독이 부상에서 돌아온 박찬호를 톱타자로 내세우고, 이우성을 2번에 배치해 '테이블 세터'를 구성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박찬호가 8회 4번타 타석에서 복귀 안타는 신고했지만 앞선 세 타석에서는 범타로 물러나면서 초반 싸움에 힘을 더하지 못했다.

이우성은 공수에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2회 실점으로 연결된 포구 실책을 기록한 이우성이 타석에서는 안타 없이 세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다.

KIA 야망 올러와 LG 요니 치리노스의 선발 맞대결이 펼쳐졌지만, 초반 예상과 다른 양상으로 흐름이 전개됐다. 수비가 분위기를 바꾼 변수가

됐다.

1회초 부상에서 복귀한 박찬호의 첫 타석은 4구째 2루수 플라야아웃이었다. 이우성과 나성범도 3루 땅볼과 좌익수 플라야로 물러나면서 소득 없이 1회가 끝났다. 2회초에는 최형우와 변우혁의 방망이가 헛도는 등 2개의 삼진이 남았고, 위즈덤의 파울플라이를 쫓던 LG 1루수 오스틴의 좋은 수비가 지 더해지면서 연속 삼자범퇴로 끝났다.

1회 2사를 실점 없이 막았던 올러가 2회말 2사에서 흔들렸다.

박동원에게 중전 안타를 맞은 뒤 구본혁을 몸에 맞는 볼로 내보냈다. 박해민과의 승부에서는 불넷까지 기록하면서 2사 만루가 됐다.

그리고 홍창기의 타구가 좌익수 앞에 떨어지면서 주자들이 움직였다. 공을 쫓던 이우성의 포구 실책까지 나오면서 1루에 있던 박해민까지 3명의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았다.

올러가 3회는 삼자범퇴로 정리하면서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았지만 4회 2개의 불넷을 허용하면서 다시 또 실점을 기록했다. 잠실 마운드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경기 도중 재정비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올러에게는 유쾌하지 못한 잠실 첫 무대가 됐다.

KIA 타선은 치리노스에 마하 줌처럼 공세를 펼치지 못했다.

6회까지 치리노스에게 뽑아낸 안타는 3회 기록된 김태군의 좌전안타가 유일했다. KIA는 나성범의 불넷과 김태군의 몸에 맞는 볼 등 6회까지 세 차례 출루에 그쳤다.

0-4로 뒤진 7회 나성범이 선두타자로 나와 좌중간 안타를 기록하면서 이날 첫 득점권 찬스가 찾아왔다.

그러나 최형우와 위즈덤이 각각 중견수 플라야와 유격수 플라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 무실점 위기에서 변우혁이 우중간 2루타를 날리면서 '0'의 침



KIA 타이거즈 올러(왼쪽 세번째)가 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시즌 2차전에서 경기 도중 마운드 재정비를 요구해 경기가 잠시 중단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목을 갠지만, 김규성의 1루 땅볼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투수가 박명근으로 바뀐 8회에는 2사에서 박찬

호가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보크로 2루까지 이동했지만 이우성이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이날이 종료됐다. 장현식이 등판한 9회에는 나성범이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고, 최형우와 위즈덤이 연속 삼진을 당하면서 경기는 그대로 1-5 패배로 끝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스완지시티 엄지성 결승골 '시즌 2호'

더비카운티에 1-0 승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스완지시티의 엄지성(사진)이 시즌 2호골을 장식했다.

엄지성은 6일 영국 웨일스의 스완지닷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챔피언십 40라운드 더비카운티와 홈 경기에서 후반 34분 골을 기록했다. 경기가 1-0 스완지시티의 승리로 끝나면서 엄지성은 결승골 주인공이 됐다.

엄지성은 0-0으로 맞선 후반 18분 하네스 델크루아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다. 후반 34분 조슈아 키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가 골대 왼쪽 바로 앞에 있던 엄지성 앞으로 향했다. 엄지성은 침착하게 오른발로 공을 밀어 넣으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지난달 9일 36라운드 미들즈브러와 경기에서 잉글랜드 무대 데뷔골을 넣었던 엄지성의 시즌 2호골. 두 경기 모두 1-0 스완지시티의 승리로 끝나면서 엄지성의 1:2호골은 모두 결승골이 됐다. 스완지시티는 엄지성의 골로 4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다.

한편 광주 금호고 출신의 엄지성은 광주FC를 거쳐 지난해 7월 스완지시티를 통해 잉글랜드 무대 도전을 시작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의 헤이스(오른쪽)가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 FC와의 홈경기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44분 골을 넣고 있다.

〈광주FC 제공〉

## PSG 리그 4연속·13번째 우승

28라운드 홈경기 양제에 1-0 승...이강인 결장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이강인(24)이 활약하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이 정규리그 조기 우승을 확정하며 4연패이자 통산 13번째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PSG는 6일 열린 양제와 2024-2025 리그1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10분 타진 데지레 두에의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 1-0으로 이겼다.

개막 28경기째 무패 행진(23승 5무)을 이어간 PSG는 승점 74를 쌓아 이날 브레스트에 1-2로 패한 2위 AS모나코(승점 50)와의 승점 차를 24로 벌렸다.

정규리그 종료까지 6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PSG는 잔여 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조기 우승을 확정, 정규리그 4연패(2021-2022, 2022-2023, 2023-2024, 2024-2025 시즌)를 달성했다.

더불어 리그1 역대 최다 우승팀인 PSG는 이 기록을 13번째로 늘렸다.

정규리그 우승으로 PSG는 지난 1월 프랑스 슈퍼컵(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시즌 2개의 트로피를 품었다.

PSG는 2024-2025 프랑스컵(쿠프 드 프랑스) 결승에 올라가 있고,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선 8강에 진출한 데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결선도 앞

뒤 더 많은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다.

비기지만 해도 조기 우승을 확정하는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은 아쉽게 결장했다.

이강인은 3월 20일 오만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7차전에서 후반 35분 발목을 다쳤다.

이강인은 최근 팀 훈련에 복귀했지만 이날 경기에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결장했다.

소속팀이 정규리그에서 조기 우승을 확정하면서 이강인은 PSG 유니폼을 입고 통산 5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3년 7월 마요르카(스페인)를 떠나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데뷔 시즌인 2023-2024 시즌에 정규리그·프랑스컵·슈퍼컵까지 세 차례 우승을 맛봤고, 이번 시즌에는 정규리그와 슈퍼컵을 합쳐 두 차례 우승 트로피를 따냈다.

이강인이 명단에서 제외된 PSG는 전반을 0-0으로 마친 뒤 후반 10분 두에의 헤더 득점이 터지면서 승기를 잡았다.

한편, 이강인은 PSG가 28라운드 만에 조기 우승을 확정하는 동안 정규리그 26경기에서 나서 6골 5도움의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지만, 선발 출전은 15경기에 그쳐 주전 경쟁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 헤이스, 나이스! 3경기 연속 골

광주FC K리그1 7라운드 제주에 1대 0 승...4경기만에 승리

헤이스가 3경기 연속골로 광주FC의 승리를 불렀다.

광주FC는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7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44분 터진 헤이스 골로 1-0 승리를 기록했다.

앞선 '1위' 대전하나시티즌과의 원정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광주는 기세를 이어 이번에는 승점 3점을 획득했다. 지난 3라운드 안양전 2-1 승리 이후 4경기 만에 기록된 승리이기도 했다.

문민서와 함께 공격 전면에 선 헤이스가 전반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제주를 압박했지만 결과로 이어지는 않았다.

전반 38분 문민서로 달려든 헤이스가 슈팅을 시도하려다가 넘어졌다. 43분에도 아사시가 살린 공을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졌다.

전반전 59%의 점유율을 가져왔지만 시원한 한 방이 부족했던 광주는 후반 문민서와 브루노를 불러들이고 최경록과 변준수를 투입했다.

후반 시작 2분 만에 조성권이 오른쪽에서 슈팅

을 시도하면서 공세의 시작을 알렸다.

3분 뒤에는 헤이스가 왼쪽에서 공을 몰고 올라간 뒤 박스까지 진입해 제주를 압박했다. 골키퍼 김동준을 마주한 헤이스가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공은 골키퍼 품에 안겼다.

후반 6분에는 변준수가 중원에서 공을 뺏은 뒤 전방으로 달려가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골로 이어지는 않았다.

후반 19분 김주공이 슈팅을 시도하면서 광주를 압박했지만 광주 수문장 김경민이 공을 품에 안았다.

후반 35분 최경록의 패스를 받은 헤이스가 왼쪽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키퍼를 스쳐 반대쪽으로 향했다.

부지런히 기회를 노리고 헤이스가 후반 44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변준수가 중원에서 길게 넘겨준 공을 잡은 헤이스가 오른쪽에서 골키퍼를 마주한 채 왼발 슈팅을 시도했다. 골키퍼 옆을 빠져나간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포항전 이후 이어진 헤이스의 3경기 연속

골이다.

이후 광주는 실점 없이 남은 시간을 지키면서 1-0 승리를 기록했고, 헤이스는 결승골을 장식했다.

경기가 끝난 뒤 한국말로 "힘들다"며 웃음을 보인 헤이스는 "힘든 경기였지만 골을 넣어서 기분이 좋다"고 언급했다.

2개의 유효슈팅을 남긴 최경록은 "아직 컨디션이 100%는 아니지만 매 경기 준비를 잘하고 있고, 펠수록 컨디션이 올라오는 것 같다"며 "오늘 슈팅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팀이 승리해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호 감독의 앞선 대전전 퇴장으로 이날 경기 지휘봉을 들었던 마철준 수석코치는 "훈련이 너무 잘 됐었고, 경기장에서 준비한 게 나와서 기분 좋게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공격 전개에서 공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격 피니시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며 최경록의 플레이를 언급한 마철준 수석코치는 결승골을 만든 헤이스에 대해서는 "골이 늦게 터지는 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선수다. 훈련에 있어서 성실한 선수라 모범이 되고,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